

Strategic narrative in Ukraine: Focusing on sharing democratic values and identity

Jeong, Junah* • Park, Sanghyeok**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use of narratives as a crucial factor that enabled Ukraine to effectively counter Russia's aggression during the 2022 Russo–Ukrainian War,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search focuses on the central theme of “democratic values and identity” within Ukraine's narrative, exploring how this narrative was crafted and how it garnered acceptance and backing from international actors. Building on existing discussions on strategic narratives,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the processes of narrative formation, acceptance by actors, and the building of solidarity. Furthermore, it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democratic values and identity” message, and how it is effectively conveyed to various actors. In the current conflict, Ukraine has projected a strategic narrative centered on “democratic values and identity,” which has reinforced solidarity among both state and non–state actors, enabling a sustained conflict with Russia. State actors have supported Ukraine's war efforts through military, economic, and humanitarian aid, while non–state actors, including individuals, organizations,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have contributed by amplifying narratives on social media, engaging in proxy warfare in cyberspace, providing internet services and aid, and 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 through international norms. This study suggests that narratives can be strategically constructed and utilized as non–military means to achieve national objectives.

Keywords : Russo–Ukrainian war, strategic narrative, democratic values, democratic identity

* (First Author) Korea Military Academy, Department of Military History, Lecturer, suamgogo4371@gmail.com, <https://orcid.org/0009-0006-3744-343X>.

** (Corresponding Author) Korea Military Academy, Department of Military History, Lecturer, dydgur529@gmail.com, <https://orcid.org/0009-0002-3105-3474>.

I.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Lee, Y. C., 2023). 당시 여론은 침공을 비판하면서도 대대전술단(battalion tactical group)과 첨단 무기를 앞세운 러시아의 승리를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은 우크라이나 측의 저항과 함께 국제사회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직·간접적인 전쟁 참여(예 : 무기 지원, 의용군 참전,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가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미흡한 전쟁수행으로 재래식 전쟁수행과 비정규전 전술, 테러와 범죄행위, 사이버 공격 등이 동반되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Hoffman, 2007). 구체적으로 양국은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면서 비물리적 공간에서 상대국의 전쟁 의지를 박탈하고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비군사적 수단 기반의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사이버전(cyber warfare) 등을 수행하고 있다(Shin & Yang, 2024).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쟁 초기 러시아가 수행한 사이버전 특징과 전략(Moon & Park, 2022)을 분석하거나 러시아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정보전이나 심리전의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Kim, K. C., 2022). 다만, 해당 연구는 러시아의 전쟁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대전 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의 비군사적 수단의 활용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Song, T. E.(2022)은 상대국의 전쟁 의지 박탈과 유리한 여론 조성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세(勢)를 규합하고자 경쟁하는 정보심리전(information & psychological warfare)의 역할과 전개양상의 복잡성을 행위자와 기술적(디지털 플랫폼의 무기화)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ang S. W.(2023)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인지전(cognitive warfare) 양상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내러티브(narrative)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자는 사이버전, 정보심리전, 인지전 등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내러티브 접근을 적용하였으나 내러티브의 투사 과정과 발화자의 전달 의도가 포함된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는 내러티브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형성되고 행위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연대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우크라이나 측에서 형성한 내러티브의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수용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내러티브는 이야기, 선전·선동과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수용하는 행위자 사이에 정체성을 공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략적 내러티브 활용은 특정한 이익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핵심 메시지를 투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활용한 내러티브의 핵심 메시지인 ‘민주적¹⁾ 가치와 정체성’에 초점을 두

1) 민주적(民主的)이란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등의 관형적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과 가치에 한정하여 사용함. Oxford dictionary, <https://www.oed.com/search/>

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가 행위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예 : IT기업, 해킹 조직, 개인)를 포함하여 이들을 자극하고 연대할 수 있었던 내러티브의 핵심 메시지와 정체성을 파악한다. 특히, 현재 연구는 민주적 가치와 이념이 국가 및 단체, 일반 시민 사이에 수용되고, 타자와 공유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목적은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내러티브의 전략적 활용을 분석하는데 있다. 해당 분석을 토대로 비군사적 수단(Means)의 방법으로 내러티브가 국가 목표(Ends)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구성되고 활용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2.1 전략적 내러티브(Strategic Narrative)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을 완결된 형태의 이야기로 조직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각각의 사건에 개별적인 의미와 목표를 부여하는 구조(Polkinghorne, 1988)로서 “행위자의 경험, 사건의 연속성과 관련된 개념”을 의미한다(Webster & Mertova, 2007). 또한 내러티브²⁾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사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수용을 유도하며, 나아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청중에게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선택될 수 있다(Kim, Y. U., 2023). 이런 내러티브는 국가 정책이나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군사전략, 외교안보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Freedman(2006)은 “Networks, Culture and Narratives”에서 군사 분쟁 간 적에게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내러티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고, 전쟁에서 적의 정당성을 무력화시키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전략적 내러티브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대표적인 내러티브 연구(Miskimmon, O’loughlin, & Roselle, 2014)에서 “전략적 내러티브는 국내외 행위자들의 의견 및 행동에 영향을 주고 국제사회의 공유된 의미를 형성하는 정치행위자의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전략적 내러티브는 세 가지 유형(‘국제관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 내러티브’,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내러티브’,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내러티브’)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Antoniades, O’Loughlin, & Miskimmon, 2010). 특히, 이에 대한 소통의 절차는 형성, 투사, 수용의 과정을 거쳐 행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Miskimmon,

dictionary/?scope=Entries&q=democratic

2) 이런 내러티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존재한다. 즉, 행위자 간의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발화자의 ‘이익’,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역사적 사건’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셋째, 이를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위자의 ‘정체성’이 요구된다.

O'loughlin, & Roselle, 2012).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내러티브 이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도 국내외 문헌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Dimitriu and De Graaf(2016)는 네덜란드 군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전략적 내러티브와 국내 정치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국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Yoo, D. W.(2018)은 중국의 ‘외교 내러티브’를 연구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 목표, 가치를 어떻게 서술하고 전달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핵심적인 전략 내러티브로 ‘중국의 꿈’을 제시하고 국제질서 변화를 목표로 중국의 내러티브가 투사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팬데믹 시기 중국의 공공외교정책을 전략적 내러티브로 분석함으로써, 서구 민주사회에 우호적인 담론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내러티브 전략을 제시하였다(Yoo, D. W., 2023). 이처럼 전략적 내러티브는 이론적 접근과 사례연구 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복잡한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효과적인 전략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2.2 현대 전쟁에서 민주적 가치와 이념의 중요성

전쟁은 본질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나 무분별하게 공격 대상을 선정하고, 과도한 공격 수단을 쓰면 전쟁의 명분과 당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현대 전쟁은 미디어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개개인에게 전황을 전달할 수 있어 무차별적 무력 사용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i.e., Simons, 2016). 이런 점에서 민주적 가치와 이념³⁾을 상실한 무력 사용은 자국에 불리한 전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로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 평등과 자유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Lee, K. J., 2018),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으로 각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⁴⁾ 즉, 모든 인간은 생명, 재산의 보호를 받으며, 개개인의 생각

3) 역사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이념은 전쟁 명분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정치의 폭력적 수단이기 때문에 전쟁의 명분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국내·외적 비판과 연전(厭戰)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은 파시즘, 군국주의를 앞세워 전쟁 과정에서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독일의 나치 세력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는 등 도덕적 관념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고, 중국에는 연합군에 항복하게 되었다. 이후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치열한 이념 경쟁이 이어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는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앞세워 공산 세력을 압박하였다. 그 외에 6·25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결성되어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공산군의 공세 의지를 효과적으로 막아냈지만, 미국과 한국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서는 친서방 국가의 비민주적 행위가 매스컴에 노출되며 국제사회와 자국민으로부터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친서방 국가는 1991년 걸프전, 1999년 코소보 전쟁,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민족, 인종, 종교 분쟁의 그늘에 가려진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전투원의 불법적 행위가 언론과 SNS를 통해 노출되며,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4) 인권백서(2004). 국가인권위원회, pp.17~21 <https://library.humanrights.go.kr/search/detail/CATCAZ000000011536>

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리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Jeong, J. A., 2023).

현대 전쟁은 과학기술과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측면에서 고도화된 유·무형의 전력 확보와 운용이 중요하지만, 전쟁 행위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지지와 여론 형성이 전략이 중요하다.⁵⁾ 결국, 특정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명분과 도덕적 가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외부의 지지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전쟁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전쟁의 현장을 빠르게 전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전쟁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Maher, Turnbull, & Lynar, 2022; Prier, 2020). 따라서 현대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3.1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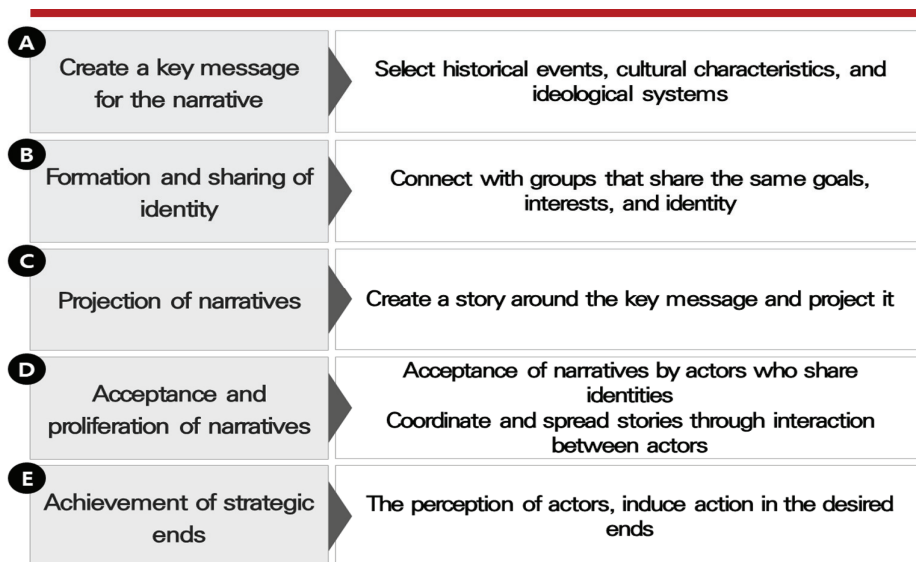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를 이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해당 분석 틀을 토대로 전략적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투사 및 수용되는 과정을 체계화하여 후속 연구자에게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전략적 내러티브의 이론적 특징과 효과를 바탕으로 내러티브가 형성, 투사, 수용되는 기준과 과정을 설정하였다(Figure 1).⁶⁾ 이를 토대로 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분석하여 전략적 내러티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핵심 메시지로 대입하여 전략적 내러티브의 투사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Table 1). 전략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투사하면서 수용하는 과정의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의 전략적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투사할 이야기 소재를 선정해야 한다. 이런 내러티브의 핵심 메시지는 이전에 존재했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특성, 이념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이를 수용하는 행위자와 같은 경험과 이익이 정체성으로 공유되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재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 내러티브의 첫 단계는

5) 김대연(2021). 신흥안보가 한국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 : 위협의 다변화 관점에서.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 연구센터 워킹페이퍼. http://futurewarfare.re.kr/bbs_sun/download.php?b_name=workingPapers&filename=workingPapers_202112141142481.pdf&oriname=working_87.pdf

6) 본 연구의 분석 틀은 ‘전략적 내러티브(Strategic Narrative)’에 대한 기존 논의와 이론을 근거로 한다. 특히, Antoniadis, Miskimmon, & O’Loughlin(2010), Miskimmon, O’Loughlin, & Roselle(2014)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전략적 내러티브가 지닌 이론적 특징과 전달 과정, 효과 등을 토대로 연구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이야기를 투사할 행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적합한 소재를 찾아 핵심 메시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적 내러티브에서 행위자의 정체성은 내러티브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정체성은 행위자의 가치관, 이익, 목표를 공유하며, 수용자와의 감정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공유하는 정체성이 명확할수록 전략적 내러티브의 설득 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수용자는 행위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내러티브의 핵심 메시지는 행위자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소재로 선정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적 내러티브를 행위자에게 투사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 등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위자의 정체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해야 하며,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와 맥락을 고려하여 정교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다양한 미디어와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투사되며, 수용자의 공감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확산한다. 넷째, 행위자가 발화자의 내러티브를 수용하는 과정은 발화자의 메시지와 행위자의 정체성, 가치관과의 일치 여부로 결정된다. 발화자는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투사하며, 행위자는 이를 자신의 경험적 맥락에서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투사되었던 내러티브의 설득력, 그리고 정체성 공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요소가 행위자의 인식과 부합할 때 내러티브는 효과적으로 수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전략적 내러티브가 행위자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경험적 맥락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얻었다면 행위자는 자연스럽게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즉, 전략적 내러티브가 정체성을 공유하는 행위자에게 투사되어 효과적으로 수용된다면, 행위자는 이를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발화자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Figure 1〉 Strategic narrative process: formation, projection, and acceptance

Table 1은 상기한 기준과 세부 과정을 근거로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핵심 메시지로 대입하여 정리한 과정이다.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전략적 내러티브 구성은 이에 대한 이해와 행위자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를 제한하는 합리적 규범으로서 법적 질서의 중요성, 생명존중, 인간의 존엄성 실현 등 다수의 행위자가 역사·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메시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민주적 이념과 가치는 다수의 국가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체제로 다양한 행위자와 정서적 연계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해하려는 행위자와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체성을 공유한 행위자에게 전략적 내러티브를 투사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이야기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구성은 행위자의 공감을 유인할 수 있는 경험과 사건, 문화적 맥락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이야기는 전쟁 및 분쟁 과정에서 적국이 행하는 비민주적 행동과 자국의 민주적 행동을 비교하고 강조함으로써 누가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령 적국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보편적인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예 : 민간인을 무분별하게 학살, 규범에 어긋난 무기체계 사용 등), 이를 바탕으로 적국의 비민주적 이미지와 사건을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메시지로 가공한 이야기는 SNS와 언론을 통해 개개인의 민주적 정체성을 자극하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개개인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야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 행위자 간 정서적 연계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i.e., Kim & Lee, 2023). 이처럼 내러티브의 투사·수용 과정에서 내용과 맥락은 더 많은 행위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정과 변화를 거쳐 자극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수용한 행위자는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내러티브의 이러한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쟁 이전부터 형성된 우호적 담론의 극대화를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SNS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행위자와 소통하며, 러시아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조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Kim, Y. J., 2022). 이는 다양한 계층의 행위자를 자극하고 연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나아가 전쟁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Table 1〉 Analytic framework

Process	Key Contents
Ⓐ Choosing democracy ideology and values as a message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such as freedom and peace, human dignity, equality, and legal order, are selected as messages
Ⓑ Formation and sharing of democratic identity	Share key values and cultures based on the ideological identity of democracies
Ⓒ A narrative projection of democratic values	Composition of a narrative about democratic or non-democratic behavior → “Who is respecting more democratic values?”
Ⓓ Acceptance of actors who share democratic identity	Accept democratic or non-democratic stories through SNS and media

Process	Key Contents
	→ Stimulating the democratic identity of various actors
㉓ Solidarity of actors who share a democratic identity	• Integration of democratic values and identities of state or non-state actors → Solidarity of forces around democratic identity

3.2 분석대상 및 범위

3.2.1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 변화양상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내러티브의 핵심 소재로 민주적 이념과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과 역사, 문화, 이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 형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은 대외전략적 측면에서 서구 민주주의 사회와 러시아 중심의 국제적 권력 간의 대립관계를 의미하는 정치군사 및 경제적, 지정학적(geopolitical) 중요성을 나타낸다(Shin, 2020; Yoon, 2021). 우크라이나는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에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가입을 시도하는 친서방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전쟁 이전부터 각종 연설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전 이후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기본이념과 가치를 소재로 내러티브를 구성해 정보전, 심리전, 인지전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내러티브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중을 대상으로 뉴스, 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이념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게다가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민주주의 기본이념과 체제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체계로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중요한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법이나 전쟁법상 전쟁의 명분과 당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소비에트의 연방국으로 존재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행하지 못했다.⁷⁾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친서방 계열의 대통령이 연이어 집권하며 민주주의 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에 발생한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차츰 형성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2022년 전쟁 발발 시기에는 민주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조력자로 유인하였고, 이는 전쟁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탈냉전 전후의 역사적 관계,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우크

7) 본 연구에서 말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용어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 근거한다. 본 지에 따르면, 개별 국가는 민주주의 지수와 등급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결합있는 민주주의 국가’, ‘혼합된 체제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로 나뉜다.

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이 어떻게 기원하고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3.2.2 탈냉전 이전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은 러시아와 반목과 대립의 역사(Yoon, S. H., 2022)로 인해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민족과 오랜 기간에 반목과 대립을 거듭하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⁸⁾ 일례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러시아 민족과 분리되어야 한다”면서 양국이 기원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강조하였다.⁹⁾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략적 내러티브는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882년, 과거 동슬라브인이 세운 ‘키이우 루스(Kievan Rus)’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키이우 루스가 13세기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하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공국(Grand Duchy of Moscow)’이 동유럽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¹⁰⁾ 키이우 루스의 멸망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은 코사크족(Cossack)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코사크는 우크라이나 남방 지역의 농민 전사를 일컫는데, 이들은 북동쪽의 러시아, 서쪽의 폴란드, 북서쪽의 스웨덴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국가의 명맥을 이어갔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가톨릭 국가 폴란드의 압박으로 인해 1654년 러시아와 ‘페레야슬라우 협약(Pereyaslav Treaty)’을 맺고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러시아는 코사크를 보호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고자 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드니프로(Dnipro)강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러시아가 각각 차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후 18세기에 러시아가 서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드니프로강 서쪽의 폴란드 점령지까지 러시아 지역으로 편입했다. 이 같은 역사적 관계로 인해 양국은 서로가 ‘키이우 루스’의 후손이라며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¹¹⁾

우크라이나의 공식적인 국가명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등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 제국이 멸망한 직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역사가, 정치가 등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UPR)’이 1917년 11월 수립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우크라

8) 우크라이나 민족은 소비에트의 연방이 되기 전부터 러시아 민족에 대항하여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소련과 하나가 된 이후로도 분리주의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된 냉전의 질서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정체성은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축적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갈등과 증오는 표면적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냉전의 수면 아래 잠복하게 되었다.

9) 매일경제 (2022. 3. 1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원하는가? <https://www.mk.co.kr/news/culture/10252009>

10) 조선일보 (2022. 3. 1.) 같은 뿌리, 민족·종교·언어 달라... 러·우크라 악연의 역사.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3/01/FFLM2KWLARBGNLIKUEMVK_G4MY/

11) 류한수 (2022).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이면, 역사 해석의 전투, 철학과 현실, 통권 133호, 99-101.

이나 인민공화국’은 수년간 내전을 겪고 동·서로 나뉘었다. 이후 서쪽 지역은 폴란드 영토에 편입되고, 동부 지역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이 수립되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핵심적인 곡물 생산지로 강제 집단화되었고, 1930년 발생한 대기근으로 인해 35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재앙을 겪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독소전쟁의 중심에서 많은 주민이 독일과 소련군에 징집되거나 학살되었다. 일부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는 갈리시아(Galicia) 지역에서 독일과 협력하며 소련에 대항하였고, 전후에는 우크라이나의 극우 정치 집단으로 성장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극우 세력은 1950년대 후반까지 준동했지만, 이후 소련의 냉전 정책으로 세력을 잃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의 연방이자 독립적인 정치체로서 소련과 70년의 역사를 함께하게 되었다.¹²⁾

3.2.3 탈냉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 형성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인 독립 국가가 되었고,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국민의 일체성을 통합하는 변화가 진행되었다.¹³⁾ 소련 해체 이후 동유럽의 일부 국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건설 단계를 진행하면서 민주국가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었다(Lee, H. K., 2008).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부와 동부 지역이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형성’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Kuzio., 2002). 서부 지역은 과거 시민사회가 겪은 민주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을 시도했지만, 중·동부 지역은 친러 성향의 정치 엘리트와 시민사회가 후원과 수혜(patron-client)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간 친서방, 친러 세력 간의 정치 갈등, 경제적 빈부 격차, 분리주의 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Kim, K. S., 2004).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서구 사회와 러시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떤 계기와 과정을 통해 민주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국내외적 정치 상황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부록 1), 1991년 소련 해체 후에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수용하여 새로운 국가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친러 세력은 정치 경험이 풍부한 집단으로 집권하면서 중·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열성적인 지지를 받아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2004년,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렌지 혁명(Orange Revolution)이 발생했다. 혁명의 결과로 우크라이나는 재선거를 거쳐 친서방 세력의 유셴코(Viktor Yushchenko)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은 친러 세력이 일으킨 비민주적 행태를 국민의 민주적인 힘으로 해결한 사례

12) 류한수 (2022).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이면, 역사 해석의 전투, 철학과 현실, 통권 133호, 99-101.

13) 김경순 (1998). 우크라이나의 국가형성과 정치변화, 슬라브 학보, 통권 제13권, 145.

로 평가받았으며, 유센코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을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고, 미군과의 합동 훈련을 추진하는 등 서방 국가와의 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유센코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정부 실정으로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면서 친러 세력인 야누코비치 정권으로 바뀌게 되었다. 야누코비치는 취임 이후에 적극적인 친러 정책(친서방 세력에 대한 정치탄압,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방해 등)을 펼쳤다. 이를 두고 미국, 독일 등의 서방 국가는 이런 친러 정책을 외교적으로 비판하고, 국내의 친서방 세력이 동조하면서 정권에 대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야누코비치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13년 11월 21일, 유럽연합 가입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크림반도와 흑해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철수 시한을 2042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¹⁴⁾ 이 같은 야누코비치의 노골적인 친러 정책은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야누코비치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반(反)시위법을 공포하고 시민에게 총을 발포하는 등 비민주적 수단을 활용하면서 유로마이단 혁명은 더욱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회의장 투르치노프(Oleksandr Turchynov)를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친서방 과도정권을 승인하면서 유로마이단 혁명은 막을 내렸다(Choi, H. Y., 2016). 이처럼 탈냉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겪은 오렌지 혁명, 유로마이단 혁명 등의 민주화 운동과 친러 세력과의 갈등은 서구 사회가 공유하는 민주적 정체성에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서방 세력으로 교체되자 친러세력과 러시아 간의 불신이 증폭되었다(Kim, S. J., 2022). 특히,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분리·독립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2월 말, 크림반도 장악을 위한 작전을 개시했고, 4월 2일 크림반도 합병을 선언했다. 크림반도 합병의 여파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반군 활동을 지원했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돈바스 지역의 분쟁은 친러 세력과 친서방 세력의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Kim, K. S., 2018). 이후 2019년에 친서방 성향의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젤렌스키는 친러 세력과 재벌들의 부패를 청산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에 발생한 돈바스 전쟁이 국지적으로 지속되며, 국내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고, 2020년 발생한 COVID-19의 여파로 개혁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Woo, J. M., 2021). 그러나 2021년 취임한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하고, “팬데믹 시기 권위주의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대만 등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는 COVID-19로 촉발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러시아, 중국 등의 권위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우크라이나의 개혁과 친서방 정책은 서방 사회

14) 오마이 뉴스 (2022. 3. 23.) 우크라이나, 친미 서부와 친러 동부의 분단 과정.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0298

의 전략적 이해와 상호작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내부적 노력과 서방 국가의 전략적 지원이 더해지며, 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형성하게 되었다.

IV.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 활용 분석

4.1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에 기반한 내러티브 투사

우크라이나는 2021년 국방백서를 통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위협으로 내러티브 전략을 제시했다(Song, T. E., 2022).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분쟁에서 러시아계 주민의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민족의 정체성”을 전략적 내러티브로 활용했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정보부(FIS)를 설립해 러시아와의 정보·심리전을 준비했고, 2015년부터 ‘Ukraine Today’, ‘StopFake’ 등의 팩트체크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2020년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훈련 중 하나인 ‘Combined Resolve XIII’에 참여해 서방 국가와 전시 정보·심리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 왔다(Song, T. E., 2022). 특히,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와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하여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서방 사회가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우크라이나의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i.e., Boichak & Jackson, 2020). 이와 같은 전략적 환경에서 우크라이나의 내러티브(예 : 젤렌스키 대통령의 담화, 연설 등)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비민주적 행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자유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투쟁을 이야기로 구성해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지원을 호소하는데 활용되었다.

4.1.1 러시아의 비민주적 행태에 관한 이야기 전달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담화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러시아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전쟁이 가져올 파멸과 고통”, “우크라이나인의 자유와 안전”, “러시아의 평화적 문제해결 요구” 등을 러시아어를 통해 전달했다.¹⁵⁾ 이 담화문¹⁶⁾은 언론과 SNS를 거쳐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가며, 러시아 침공에 대한 규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해당 담화는 우크라이나를 단지 전쟁의 ‘피해자’,

15) KBS 뉴스 (2022. 2. 24.) ‘러시아 국민’에게 호소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03069>

16) 본 저자는 우크라이나의 담화문은 러시아의 호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지향하는 민주적 이념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함.

‘약자’의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2월 25일 페이스북의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건재하다. 러시아가 침공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강조하였다.¹⁷⁾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러시아군에 열세 상황이었지만, 전선에서 자행되는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와 비민주적 행태를 표명하는 이야기를 전달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데 활용하였다. 2022년 4월 5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회의의 화상 연설에서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된 ‘부차(Bucha) 학살’ 사례를 언급하였다. 특히, 그는 러시아군에 살해된 희생자 시신을 여과 없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잔혹한 행위는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하는 행위”로 러시아군의 비민주적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을 재판했던 뉘른베르크 재판 등을 예로 들어 “러시아군과 전쟁 지도부를 전범 혐의로 재판장에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¹⁸⁾ 같은 해 9월 22일에는 ‘제77회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러시아의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고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25분의 연설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와 국제법은 테러리스트 국가보다 강하다”며 “전쟁범죄를 일삼는 침략 국가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정직하고 진실한 평화를 희망한다”며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평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¹⁹⁾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던 2023년 3월, 젤렌스키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침공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는 부정선거, 사이버 범죄, 간첩 활동 등 비민주적 수단을 활용해 세계의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민주주의의 적은 패배해야 하고,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위한 안보의 기반”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닌 민주적 정체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회의를 주관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힘을 합치면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지원을 촉구했다.²⁰⁾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의 비민주적 행태를 고발하며, 전쟁의 담론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쟁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군사적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17) 매일경제 (2022. 3. 12.), [리더의 소통] 32초, 젤렌스키 동영상에 보여준 소통 혁신.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249046>

18) 연합뉴스 (2022. 4. 6.) 젤렌스키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 안보리서 ‘부차 학살’ 연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6000500072>

19) 부산일보 (2022. 9. 19.) 젤렌스키 유엔 연설 “동원령 러, 종전 원치 않아... 전쟁 범죄 처벌해달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2210424757345>

20) 경향신문 (2023. 3. 30.), 젤렌스키, “러시아는 민주주의 적... 약과 타협 안돼”.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3300739001>

4.1.2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 전달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민주적 투쟁을 강조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젤렌스키를 ‘독재자 푸틴’에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영웅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연일 SNS를 통해 민주적 정체성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²¹⁾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의 희생을 이야기로 전달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스네이크 섬(Snake Island)’에 주둔한 국경수비대원 13명이 ‘러시아 슬라바급 순양함(Slava-class cruiser)’인 ‘모스크바 함’의 위협에 대항하는 음성파일을 SNS에 게시하여 우호적 여론을 조성했다. 또한, 러시아 전투기 40기를 격추한 ‘키이우의 유령(The Ghost of Kiev)’을 영웅적 일화로 구성하여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키이우의 유령’은 우크라이나가 만들어 낸 허구적 이야기²²⁾로 밝혀졌으나, 내러티브에 활용되는 이야기는 반드시 진실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허구의 소재도 내러티브의 이야기로 사용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행위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이를 의미 있는 것으로 수용하느냐는 것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전차를 비무장으로 막아선 시민의 모습과 러시아군 도하를 막기 위해 자폭을 선택한 해병대원의 이야기 등 진실과 허구가 혼재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는 SNS와 언론을 통해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전 세계의 행위자들에 투사되었다.

한편, 2022년 12월 미국에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연설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초당적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는 이 연설에서 “여러분의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이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영토 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 세계는 긴밀히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금 벌어지는 전쟁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²³⁾ 이처럼 젤렌스키는 국제사회의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관념적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과 서방 사회의 민주적 정체성을 서로 연결 짓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 이전부터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서방 국가와 친선 정책을 추진하고, 전쟁 발발 이후에 담화와 연설을 활용한 전략적 내러티브를 국제사회에 투사해왔다. 2022년 12월에는 그동안 발표한 연설과 담화문을 엮어 A Message from Ukraine(Zelensky, V., 2022)을 발간했다.²⁴⁾ 이 책은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21) 주간조선 (2022. 3. 4.), ‘민주주의 상징’으로 떠오른 젤렌스키의 투쟁.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62>

22) 한국일보 (2022. 5. 3.), ‘키이우의 유령’은 없었다... 우크라 “공군의 집단 이미지” 공식 인정. https://m8.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315010000269?topicView=y&stt_id=a06afd1c-5962-432b-932d-54a94e43b694

23) 이데일리 (2022. 12. 22.), 젤렌스키 美 의회서 지속적인 지원 호소...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535446632561144&mediaCodeNo=257>

24) 이 책 서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야기하는 책”이라며 이 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염원과 원칙, 가치를 이해하기 바란다”고 작성했다. Volodymyr Zelensky (2022), A Message from Ukraine: Speeches, 2019~2022, Crown Publishing Group (NY)

우크라이나가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이야기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부터 형성한 민주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쟁의 이야기를 구성했다.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 전쟁법에 기초한 법적 질서 등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핵심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러시아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를 전달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높은 민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수용되었고, 소셜 미디어는 이를 조정하고 재확산하는 매개체로 활용되었다(Bang, J. B., 2024). 이어지는 내용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를 수용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전쟁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전략적 내러티브의 효과를 분석한다.

4.2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한 행위자의 수용과 연대

4.2.1 국가 행위자의 전략적 내러티브 수용과 연대

우크라이나가 초반 군사력 수준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적 내러티브를 수용한 국가 행위자의 역할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는 민주주의 국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쳐 대외적인 국가 지원이 진행되었다. 독일의 연구조사기관인 키엘(KIEL)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인도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총 40개국(예 : 미국, 독일, 영국, 폴란드 등)으로 조사되었다.²⁵⁾ 이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을 제외한 총 39개국으로 조사되었고²⁶⁾ 지원 규모가 약 90조 원 수준에 달한다.²⁷⁾ 다만 지원방법과 규모는 각국의 이익과 안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부 유럽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택했다(i.e., Jung, E. S., 2023).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의 국가는 노르드스트림(Nord Stream)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지만, 이 같은 경제적 요인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였다(Lee & Kim, 2024).

상기한 현황에서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전쟁 이전부터 무기지원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은 전쟁 전 2021년 말부터 재블린(Javelin), NLAW 등의 대전차 무기를 지원했으며, 전쟁 직후에 고속기동포병시스템(HIMARS), 드론

25)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The Ukraine Support Tracker". *KIEL WORKING PAPER* (NO. 2218), June 2024. <https://www.ifw-kiel.de/topics/war-against-ukraine/ukraine-support-tracker/>

26)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정체성을 보다 실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2022년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근거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 정치체제의 방향성 등을 민주적 정체성의 기준으로 고려했다.

27) 조선일보 (2022. 4. 24.), 중립국 스웨덴도 동참... 세계 28國, 우크라이에 90조원 군사 지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4/21/TO5ARFVPNVCVLBAC3MHXTK43KU/

등을 지원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9월 ‘하르키우(Kharkiv)’를 탈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헤르손(Kherson)’을 수복하는 등의 전과를 달성하였다.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으로부터 ‘에이브럼스’, ‘첼린저 II’, ‘레오파르트 II’와 같은 주력 전차와 무인기 등을 지원받아 돈바스와 러시아 국경 일대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²⁸⁾ 2024년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국가의 군사적 지원 규모를 추산하면 약 1,1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린드-리스 프로그램(Lend-Lease Program)을 부활시키고 총 544억 달러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²⁹⁾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쉘츠(Olaf Scholz) 총리는 “푸틴이 자국 내에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러시아 주변에는 법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였다.³⁰⁾ 이에 따라 독일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총 약 278억 유로 수준을 지원하였다.³¹⁾ 프랑스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유엔 및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유럽 사회의 문화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규군 파병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으나 직접적인 파병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³²⁾ 한편, 발트해(Baltic Sea) 인근에 있는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금 운동을 추진했다. 리투아니아 정부 소셜 미디어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튀르키예에서 제작한 공격용 무인기 바이락타르(Bayraktar) TB2를 구매하기 위해 약 67억원 상당의 금액을 모금했다고 밝혔다.³³⁾ 이 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재건을 지원하는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한민국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였다.³⁴⁾

이처럼 수많은 국가 행위자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이들이 민주적 정체성

28) 조선일보, (2024. 8. 14.) 푸틴 허찌른 우크라... 러 본토, 2차 대전 이후 처음 점령당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8/14/FFKCGELUD5GQNM427GHZPEWERU/

29)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The Ukraine Support Tracker”. *KIEL WORKING PAPER* (NO. 2218), 2024. <https://www.ifw-kiel.de/topics/war-against-ukraine/ukraine-support-tracker/>

30) 연합뉴스 (2022. 6. 21.) 쉘츠 獨 총리 “푸틴, 자국 내 민주주의 확산 두려워해”.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040600009>

31) Die Bundesregierung informiert, How Germany is supporting Ukrain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germany-aid-for-ukraine-2192480>

32) KBS 뉴스 (2024. 5. 28.), ‘파병론’ 프랑스, 우크라에 교관 파견해 장병 훈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3533&ref=A>

33) 연합뉴스 (2022. 5. 30.), 우크라에 공격용 드론 사주려...리투아니아 3일만에 67억원 모금. <https://www.yna.co.kr/view/MYH20220530009000704>

34) KBS뉴스 (2023. 2. 22.), 英 언론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이 일본보다 적극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10757>

을 공유하는 국가이며,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내러티브를 통해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구성한 전쟁의 이야기는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투사되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은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일수록 국민의 주권과 여론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어 국가 지도자는 현상을 지배하는 대세 담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국가는 러시아와 이해관계를 의식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을 고민했지만, 국내외적 여론을 고려하여 경제적 혹은 인도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다.³⁵⁾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는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 행위자에게 효과적으로 투사되어 다양한 형태의 지지와 연대를 유도할 수 있었다.

4.2.2 비국가 행위자의 내러티브 수용과 연대

탈냉전 이후 현대 전쟁의 양상은 ‘하이브리드전’으로 정규전과 더불어 군사적 · 비군사적 수단(비정규전, 테러, 범죄, 사이버 공격 등)이 동반되는 모습이 나타난다(Park & NA, 2015). 이런 점에서 현대 전쟁의 주체는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개인, 단체, 기업, 국제 기구 등)로 확장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도 이 같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한 행위자에게 내러티브를 투사해 초국가적 연대를 이끌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는 개개인의 민주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개전 초기,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세계를 지키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우크라이나에 와 달라”고 호소하며 외국인 의용군 입대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개인 행위자에게 이런 지원 행위가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달한 것이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용군에 자원한 사람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면서 전투원으로서 ‘러시아의 전쟁범죄’와 ‘전선의 참혹함’을 증언하고 러시아의 침략행위가 파생한 비극적 상황을 이야기로 전달했다.³⁶⁾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는 개개인 행위자의 민주적 정체성을 자극했고, 이를 수용한 행위자가 이야기를 조정, 확산시키면서 개전 2주 만에 무려 2만 명의 사람이 의용군에 지원했다.³⁷⁾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들을 ‘우크라이나 국토방위 국제군단’으로 편성해 물자와 무기를 지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직면한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전하는 이야기로 러시아의 비민주적인 행태와 우크라이나의 포용적인 모습을 대조적으로 담아 전달하고 있다.³⁸⁾ 일례로 우크라이나의 인플루언서 발레리샤(Valerisssh)가 제공한 영상³⁹⁾은 대내외적으로 민주

35) MBC 뉴스 (2022. 6. 21.). 한국, 우크라이나에 646억원 추가 지원 ... “인도적 지원 · 무기 포함 안 돼”.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0770_35666.html

36) 동아일보 (2023. 6. 5.). [단독]우크라이나 의용군 인터뷰 “PTSD로 고통 받지만 후회 없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05/119634146/1>

37) 경향신문 (2022. 3. 7.). “우크라이나 ‘도둑’ 외국인 의용군 약 2만 명 모여... 정부 허가 없이 입대 두고 논란도”.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3070809001>

적 정체성을 자극하고 연대하는 영향을 끼쳤다. 결국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의 리터러시 역량을 중요하게 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되었다.⁴⁰⁾ 이처럼 우크라이나 국민이 알리는 전쟁 이야기는 국가가 제공하는 이야기와 비교하여 투명성,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전하는 전쟁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수용되어 빠르게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Song, T. E., 2022).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비국가 집단, 언론 등 개별 단체의 연대를 이끌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인하고, 최초로 제3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승인하며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국제법적 차원에서 제재를 시도하였다.⁴¹⁾ 개별 단체로는 러시아에 사이버전을 선포한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⁴²⁾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대상으로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고 러시아 국방부의 웹사이트나 국영 TV 채널을 해킹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상을 러시아 국민에게 송출하여 전쟁에 영향을 주었다.⁴³⁾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투사한 전략적 내러티브는 서방이 주도하는 언론 매체를 통해 조정되고 확산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젤렌스키의 영웅적 이미지와 폐허로 변한 우크라이나의 참상은 우크라이나는 선(善)의 이미지, 러시아는 악(惡)의 이미지로 프레임되어 이야기의 내용을 자극적으로 구성하여 국제사회의 행위자에게 전달하였다.⁴⁴⁾ 즉,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전쟁의 이야기가 서방 언론을 통해 대세 담론으로 전달된 것이다.

또한 이런 전략적 내러티브는 미디어 플랫폼을 주도하는 다국적 IT 기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구

38) 조선일보 (2022. 3. 3.). 우크라 주민이 건넨 따뜻한 빵... 항복한 러 군인 눈물 터트렸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3/03/N6PX7ZEGE5DVJD2LAVVDLELYYE/.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투항한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주민에 돌려써 빵과 음료를 건네받는 등 인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39) KBS 뉴스 (2023. 3. 13.). [테크톡] 전쟁 참상 알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SN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14102>

40) 김선남(2021).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열린정책 (Vol.12)

41) 김상걸 (2022. 3. 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ICC 수사 개시의 국제법적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339&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력침공에 맞서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려는 국제사회의 응집력으로 볼 수 있다.

42) 이들은 스스로를 해커(hacker)와 활동가(activist)를 합친 합성어 해커비스트(hacktivist)라 지칭하며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권위주의 국가와 무장 테러 조직 등 민주적 가치와 이념에 역행하는 국가·비국가 행위자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왔다.

43) 박동휘(2022). 사이버전의 모든 것, 플래닛미디어.

44) 본 연구는 서방 언론의 보도윤리와 같은 도덕성의 문제는 배제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담론환경이 민주적 정체성을 지닌 행위자에게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글은 러시아가 구글맵(Google Maps)을 활용해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어 관련 실시간 서비스 기능을 제한했다.⁴⁵⁾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통신 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위해 민간 및 군 분야의 통신망 활용이 가능한 ‘스타링크(Starlink)’를 제공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메타(Meta)’ 등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한 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기업의 대부분은 미국과 서방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공익실현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이나 사업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 판단한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의 지지와 지원도 비국가 행위자의 연대로 평가할 수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유엔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서방 국가는 러시아의 침공을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민주적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한 주변 국가의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유럽 연합의 ‘East StratCom Task Force’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의 활동을 알리는 사이버전 지원을 추진하였다. 일례로 이들이 발간하는 ‘Disinformation Review’는 러시아의 가짜뉴스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EUvsDisinfo’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의 수많은 허위 정보 사례를 분석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확산시키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내러티브를 통해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연대를 유도함으로써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경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이를 공유하는 행위자의 정체성을 자극함으로써 전쟁에 관한 지지와 지원을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중심으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Table 2),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는 투사, 수용, 연대의 과정을 거쳐 전쟁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먼저 전략적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투사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정서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와 정체성이 요구된다. 우크라이나는 탈냉전 이후 형성한 민주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이야기의 소재로 활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투사할 수 있도록 행위자에게 전달할 이야기의 맥락을 러시아의 비민주적 행위와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행위로 각각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전쟁의 이야기는 대통령의 연설과 담화, 언론의 뉴스와 기사, 개별 행위자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제사회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에게 우크라이나의 내러티브는 유의미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수용되었다. 이를 수용한 국가 행위자는 관념적 지지와 물질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원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에서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전투 참여, 여론 형성, 대리전 수행, 안보협력 등의 형태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등한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

45) 조선일보(2022. 2. 28.). 구글, 우크라이나 도로 실시간 보여주는 구글맵 기능 차단.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2/28/WVWZY6TZXNAKPE7763VTNPMTLI/

〈Table 2〉 Results of Ukraine's strategic narrative utilization

Process		Key contents	Available methods
Projection of a narrative		• Key message: Democratic values and ideologies	• Speech • statement • News • Article •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 Story composition (led by the government) – Storytelling on Russia's undemocratic behavior – Contents: Violation of the law of war, threat of democratic system, etc – Storytelling on Ukraine's democratic behavior – Contents: Protection of democracy, willingness to fight against Russia, etc	
Acceptance and solidarity of narratives	State actors	• Ideological level: political and ideological support • Material level: military, economic and humanitarian aid	
	Non-state actors	• Individuals – Volunteer Army Support – Reproduction of Stories through Social Media • Groups – Conduct a proxy war – Creating a Friendly Discussion Environment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Creating a Friendly International Environment – Cooperation in Security	

V. 결론 및 시사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적 측면에서 전차, 포병 등의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 제1차 세계 대전과 같은 참호전 양상의 재현, 드론의 전방위적 활용 등에 관한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나타났다 (Kim & Cho, 2023; Kim, Shin, & Lee, 2023). 이와 더불어 비군사적 측면에서 적의 사기 저하나 불리한 정보 확산, 자국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등의 사이버전, 정보심리전, 인지전 등이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Kim, S. H., 2022; Song, T. E., 2022). 현대 전쟁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전장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전쟁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군사적 수단에 관한 내러티브의 전략적 투사, 수용, 연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핵심 메시지로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와 공유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오렌지 혁명, 유로마이단 등의 민주 혁명을 통해 친러 세력과 대항하며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는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이는 우크라이나와 서구 민주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시도하는 등 서방 국가와 정서적 연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 이후에 나타난 우크라이나의 조치도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력과 미흡한 전쟁 준비 등으로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 돈바스 지역의 반군 지원, 사이버 공격을 동반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의 가짜뉴스, 정보심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과 대응 수단의 부족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유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추가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나갔다. 군사적으로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여 서구권의 무기, 전술 등을 도입하는 등 현대적인 군대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서방과의 정서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Sea Breeze’, ‘Combined Resolve XIII’ 훈련 참여, 유럽연합과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등을 통해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지속적인 교류를 시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크라이나는 이전과 다른 전략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고, 2022년 러시아의 침공 과정에서 국제적 지지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적 정체성이 형성된 나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2023년 민주주의 지수의 결과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에서 22번째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통해 유엔군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적 경험이 있고, 미국과 맺어온 70여 년의 동맹으로 민주주의 사회와 정서적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내러티브로 투사하기에 적절한 환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는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65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는 정보심리전, 인지전의 한 방법으로서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에 기반한 내러티브를 투사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을 내러티브를 보다 효과적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군의 성숙도가 높아져야 한다. 특히, 장병들이 민주적 이념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무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와 자유를 뒷받침하는 이념적 토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군의 전문성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전력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확대해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본연의 임무를 이해하고, 전쟁에서 민주적 가치와 이념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불법적 행위는 상대국의 이야기 소재로 재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전쟁법 위반 행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례 교육을 통해 전투원의 불법적 행위가 전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내러티브가 투사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외교와 미디어 전략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We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the anonymous reviewers for their thoughtful and constructive feedback, which has greatly improved the quality of our manuscript.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d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authorship, and/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and Literature review: JJ and PS, Resources and Data curation, Investigation and Methodology: JJ and PS, Writing (Original Draft): JJ and PS, Project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JJ.

Reference

- Antoniades, A., O'Loughlin, B., & Miskimmon, A. (2010). Great Power and Strategic Narratives. Working Paper (Brighton: University of Sussex, 2009) No. 7, The Centre for Global Political Economy.
- Bang, J. B. (2024). Use of Social Media and Implications in the Russo-Ukrainian War. *Journal of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76, 69-102. <https://doi.org/10.23054/jsmfe.2024..76.003>
- Boichak, O., & Jackson, S. (2020). From national identity to state legitimacy: Mobilizing digitally networked publics in eastern Ukraine. *Media, War & Conflict*, 13(3), 258-279. <https://doi.org/10.1177/1750635219829>
- Choi, H. Y. (2016). Ukraine's War in Donbas and Refugees, and The Task, *EVANGELICAL MISSIOLOGY*, 33(1), 247-274. <https://doi.org/10.20326/KEMS.33.1.247>
- Dimitriu, G., & De Graaf, B. (2016). Fighting the war at home: Strategic narratives, elite responsiveness, and the Dutch mission in Afghanistan, 2006–2010. *Foreign Policy Analysis*, 12(1), 2-23. <https://doi.org/10.1111/fpa.12070>
- Freedman, L. (2006). Networks, culture and narratives. *Adelphi Papers*, 45(379), 11-26. <https://doi.org/10.1080/05679320600661640>
- Hoffman, F. G. (2007).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p. 51). Arlington: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Retrieved from <https://www.comw.org/qdr/fulltext/0712hoffman.pdf>
- Jeong, J. A. (2023). *A Study of the Military Self-Control for the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Focusing on the Innere Führung in the Bundeswehr*.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6684506>
- Jung, E. S. (2023).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Russia-Ukraine War on the World Economy and Logistics Industry. *Regional industrial research*, 46(3), 155-182. <https://doi.org/10.33932/rir.46.3.7>
- Kang S. W. (2023). The Concept of Cognitive Warfare and Its Implication for the ROK Defense.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39(1), 179-212. <https://doi.org/10.22883/jdps.2023.39.1.006>
- Kim, H., & Cho, J. (2023). Spatiotemporal analysis of drone operations using 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 (ACLED): Focusing on the Russia-Ukraine war. *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 6(3), 55-81. <https://doi.org/10.37944/jams.v6i3.230>
- Kim, J., & Lee, S. (2023). Collective Adaptive Responses Through Coping and Sensemaking Under

- Stress. *SAGE Open*, 13(4), <https://doi.org/10.1177/21582440231205418>
- Kim, K. C. (2022). Russian information warfare activities in the Ukraine war. *The Journal of Slavic Studies*, 38(4), 29-60. <https://doi.org/10.17840/irsprs.2022.38.4.002>
- Kim, K. S. (2004). Post-Soviet Ukraine in Transition: Features and Prospects. *Sino-Soviet Affairs*, 28(1), 117-145. <https://G704-000471.2004.28.1.005>
- Kim, K. S. (2018). Russia's 'Hybrid Warfare': Focusing on the Ukraine Crisis. *Korean Journal of Military Affairs*, 4, 75-77. <https://doi.org/10.33528/kjma.2018.12.4.63>
- Kim, M. G., Shin, I. T., & Lee, J. G. (2023).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ext Generation Drone Through Analysis of the Role of Drones Used in Warfare : From Gulf War to Ukraine War.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10), 656-664. <https://doi.org/10.5762/KAIS.2023.24.10.656>
- Kim, S. H. (2022). A Study on the Cognitive Warfare's Attack Pattern and the Plan of Reaction : Focusing on Annexation of Crimea by the Russian Federation in 2014 and Ukraine War in 2022. *21st centry Political Science Review*, 32(4), 21-49, <https://10.17937/topsr.32.4.202212.21>
- Kim, S. J. (2022). Russia-Ukraine War: Implication and Impact. *Slavic-Eurasian Studies*, 27(2), 1-34. <https://doi.org/10.46694/JSS.2022.6.37.2.1>
- Kim, Y. J. (2022). Is Russia a Loser in a War?: The Russia Ukraine War and Strategy of Alexander Svechin. *STRATEGIC STUDIES*, 29(3), 257-282. <https://doi.org/10.46226/jss.2022.11.29.3.257>
- Kim, Y. U. (2023). *China's Strategic Narratives Study - Focusing on Reception of European Countries to the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6684532>
- Kuzio, T. (2002). *Transition, Economics and Reform in Ukraine's "Quadruple Transition"*, Robert S. Kravchuk, *Ukrainian Political Economy: The First Ten Years* (N.Y: Palgrave Macmillan). <https://doi.org/10.1057/9780230107243>
- Lee, H. K. (2008).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Eastern Europe,the Process of Dissolving of the Social - Economic Monopoly. *Hyonsang-gwa-Insik*, 32(1), 128-152. UCI : G704-001417.2008.32.1.001
- Lee, H. Y., & Kim, D. H. (2024). The Impact of the US-Russia Energy Conflict and the Russo-Ukrainian war on Europe's Energy Crisis and Response, *Korea and World Review*, 6(2), 316-318. <https://doi.org/10.22743/kwr.2024.20..313>
- Lee, K. J. (2018).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recall system as a realizing measure for that principle. *HAN YANG LAW REVIEW*, 29(2), 29-53.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51556>
- Lee, M. Y. (2024). Russia-Ukraine War 2023 : Situation and Prospects. *Journal of Peace and*

- Unification Studies*, 16(1), 381-418. <https://doi.org/10.35369/jpus.16.1.202406.381>
- Lee, Y. C. (2023).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s of War in Modern Warfare.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17(1), 21-24. Retrieved from https://cmrd.or.kr/html/sub3_01.html?pageNm=article&journal=1&code=431851&issue=32772&Page=1&year=2023&searchType=title&searchValue=
- Maher, T. W., Turnbull, B., & Lynar, T. (2022). Defining Influence across Online Social Media Platforms. *Journal of Information Warfare*, 21(2), 1-20. <https://www.jstor.org/stable/27199966>
- Miskimmon, A. O'Loughlin, B. & Roselle, L. (2012). Forging the world: Strategic narrativ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Centre for European Politics/New Political Communications Unit, 1-5. <https://doi.org/10.3998/mpub.6504652>
- Miskimmon, A., O'loughlin, B., & Roselle, L. (2014). *Strategic narratives: Communication power and the new world order*.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871264>
- Moon, Y. D. & Park, D. H. (2022). Russian Cyber Warfare Strategy during the Early Stage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Minjok Yeonku*, 80, 10-34. <https://doi.org/10.35431/MINJOK.80.2>
- Park, I. S. & NA, J. N. (2015). Hybrid War : New Ways of War?.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71(3), 1-32. <https://doi.org/10.31066/kjmas.2015.71.3.001>
- Po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Albany, NY: SUNY Press. <https://doi.org/10.1086/229259>
- Prier, J. (2020). *Commanding the trend: Social media as information warfare*. In *Information warfare in the age of cyber conflict* (pp. 88-113).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429470509>
- Shin, B. S. (2020). Foreign Strategy Dilemma of Ukraine as a Geopolitical Middle Ground State. *Review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9(1), 37-69. <https://doi.org/10.56115/RIAS.2020.03.29.1.37>
- Shin, B. S., & Yang, J. Y. (2024). The Ukraine War and Cyber Warfare: The Impact of Russian Cyberattacks and NATO's Support for Ukraine.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34(1), 129-165. <https://doi.org/10.22414/rusins.2024.34.1.129>
- Simons, G. (2016). *Mass media and modern warfare: reporting on the Russian war on terrorism*.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594224>.
- Song, T. E. (2022). 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of 2022 Russia-Ukraine War: Competition of Narratives, Digital Platforms, and Convening Power.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62(3), 213-255, <https://doi.org/10.14731/kjir.2022.09.62.3.213>
- Webster, L. & Mertova, P. (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An introduction to using critical event narrative analysis in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946268>

- Woo, J. M. (2021). Global Upheaval and Ukraine's Anti-corruption Efforts, and Reform Tasks in the COVID-19 Era, *East European & Balkan Studies*, 45(4), 105-106. <https://doi.org/10.19170/eebs.2021.45.4.89>
- Yi, E. K. (2022). Analysis of Discourse in Korean Media on the War in Ukraine,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61, 581-606. <https://doi.org/10.15755/jfs.2022..61.579>
- Yoo, D. W. (2018). A Study on the China's diplomatic narratives. *Sino-Soviet Affairs*, 42(3), 41-81. <https://doi.org/10.21196/aprc.42.3.201811.002>
- Yoo, D. W. (2023). A Study on the China's Public Diplomacy in Pandemic Era: Focused on Strategic Narrative. Korean. *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 21(1), 9-31. <https://doi.org/10.36527/KCSSS.21.1.1>
- Yoon, S. H. (2021). Conflict and Escalation between Russia's Eurasian Great Power Policy and Ukraine's pro-Western Policy: Focus on the Crimean Crisis in 2014 and the Donbas War.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39(4), 111-148.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87168>
- Yoon, S. H. (2022). Ukrainian War and the Geopolitical Change in Central Asia: Focusing 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BRI.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32(1), 79-105. <https://doi.org/10.22414/rusins.2022.32.1.79>

원 고 접 수 일 2024년 07월 14일

원 고 수 정 일 2024년 08월 27일

게 재 확 정 일 2024년 08월 30일

〈부록〉

부록 1.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정체성 형성 과정

연 도	핵심 사건	민주적 정체성 형성 과정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민주적 이념과 가치 수용〉
2004년	오렌지 혁명(Orange Revolution)	〈민주적 정체성 형성 단계〉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노력 + 서방 사회의 외부적 지원
2005년	친서방 성향의 유센코 대통령 취임	
2010년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2013년	유로마이단(Euromaidan) 혁명	
2014년	크림반도 합병 & 돈바스 전쟁 발발	
2019년	친서방 성향의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2021년	코로나 19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	친서방 국가로서 민주적 정체성 공유
2022년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 공유를 중심으로

정준아* · 박상혁**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내러티브(narrative)의 전략적 활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내러티브의 핵심 메시지로써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에 주목하여 우크라이나의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국제사회의 행위자가 이를 수용 및 연대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략적 내러티브에 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내러티브의 형성과 행위자의 수용, 연대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이라는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행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내러티브를 분석한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소재로 전략적 내러티브를 투사하여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연대를 유도하고 러시아와의 장기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 행위자들은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개인, 단체, 기업, 국제기구 등 비국가 행위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내러티브 재생산,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리전 수행,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원조, 그리고 국제규범을 통한 전략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가 비군사적 수단(Means)의 한 방법(Ways)으로서 국가의 목표(Ends)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구성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략적 내러티브, 민주적 가치, 민주적 정체성

* (제1저자)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suamgogo4371@gmail.com, <https://orcid.org/0009-0006-3744-343X>.

** (교신저자)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dydgur529@gmail.com, <https://orcid.org/0009-0002-3105-3474>.